



# 이 사람

해외 인터넷 봉사단을 다룬 심정선(동양·이과 99)군

## “해외봉사, 언어가 가장 중요해요”



심정선

각 나라로 파견된 봉사팀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을 덧붙여 전했다.

중동국가로 인턴 봉사팀 간에는 심군이 소속 팀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알제리 봉사활동을 떠난 이유에 대한 물음에 그는 “인턴으로 어학연수를 갔을 때 알제리가 여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히려 그 말에 알제리가 어떤 곳인지 궁금했어요”라고 답했다. 그의 팀은 MS오피스, 홈페이지, 네트워크 등의 3개의 언어로 나눠 현지인 총 24명을 가르쳤는데 반론, 짜증, 공포, 학생들이 대부분 참았다고 한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아티클을 배우는 자리도 준비해 갔다고 말했다. 심군은 “수업준비를 밤새 세기 일주일에 그들의 진정한 모습에 기분이 너무 좋았다”라고 칭하며 지금도 가르쳤던 사람들과 전지우편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알제리 사람들은 인터넷 등 IT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들 걱정할 정도로 의외의 적응과 그 충동을 해결하면서 리더로서 팀을 이끄는 것이 어렵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3주간의 힘든 일을 회상했다. “내 인생에서 아주 보람있고 뜻깊은 경험이었어요”라며 의대인턴에게 봉사활동으로 얻은 것이 많으며 적극 권유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봉사활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언어예요”라며 언어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전하며 길게 그동안 열군로 밝게 웃었다.

심정선 기자 tinguu@hanmail.net

# 제6회 세계영화제 “도시, 우리가 떠도는 섬”

올해로 여섯 번째 열리는 세계영화제는 오는 24일(화)부터 27일(금)까지 4일간 세계영화제 준비위원회 주최로 서울배움터 대학로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의 주제는 ‘영화로 떠나는 세계 여행 도시, 우리가 떠도는 섬’으로 결정됐다. 세계영화제 준비위원회는 서한미(시상·불어 99)양은 “영화 속에 비치는 각 나라 도시들의 모습들은 다르지만 영화 속 인간들의 생활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다”며 각 나라 사람들의 보편적 삶을 보여주는 것을 중점으로 영화를 선별했다고 말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개막작 ‘춤추는 무부’와 폐막작 ‘동승’을 포함한 12편의 영화가 선정됐다.

폐막작으로 선정된 불교소재 영화 ‘동승’은 우리학교 동문이자 영화감독인 ‘돌림’을 설립한 주경중씨가 감독한 작품으로 상하이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해외영화제에 초청되고 있다고 한다. 올해는 부대행사로 25일(수) 오후 5시 반에 영화인의 강연회가 열릴 예정이며 오후 7시에는 겨울연가의 오아시스 이미지 앨범에 참가했던 이무마씨의 파노라마 연주회와 인문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영화로 떠나는 세계여행’도 열린다.

27일 폐막식이 끝난 후 밤 11시부터 열리는 상이영화제에는 ‘기쿠지로의 여름’과 ‘엑소시스트’, ‘냉전과 열정사’가 연속 상영된다.

준비위원장 서한미양은 “이번 영화제에는 보다 많이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선별하려고 고안했다”며 “세계영화제 전 의대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세계영화제 준비위원회는 이번 영화제를 위해 자원봉사단원을 모집한다. 연락처는 016-874-6270다.

권정우 기자 tinguu@hanmail.net

의영화제에 초청되고 있다고 한다. 올해는 부대행사로 25일(수) 오후 5시 반에 영화인의 강연회가 열릴 예정이며 오후 7시에는 겨울연가의 오아시스 이미지 앨범에 참가했던 이무마씨의 파노라마 연주회와 인문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영화로 떠나는 세계여행’도 열린다.

27일 폐막식이 끝난 후 밤 11시부터 열리는 상이영화제에는 ‘기쿠지로의 여름’과 ‘엑소시스트’, ‘냉전과 열정사’가 연속 상영된다.

준비위원장 서한미양은 “이번 영화제에는 보다 많이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선별하려고 고안했다”며 “세계영화제 전 의대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세계영화제 준비위원회는 이번 영화제를 위해 자원봉사단원을 모집한다. 연락처는 016-874-6270다.

권정우 기자 tinguu@hanmail.net

(세계영화제 상영시간표)

날짜	9월 24일(화)	9월 25일(수)	9월 26일(목)	9월 27일(금)
오전 1시	차후부신 (한국)	Vive la vie (프랑스)	서울 (이탈리아)	춤추는 무부 밤 (에스파냐)
오전 3시	밀러니르로베 (미국)	마리아브라온의 결혼 (독일)	사니 스테노 (이탈리아)	중경삼림 (중국)
5시 30분	동경의 주역	영리한 강연회	인기숙의 동경 (그리스)	영희록 (노란국)
8시 30분	계막 춤추는 무부 (인도) 노란국	7시-이무마 파노라마 연주회 대경당		계막 춤추는 무부 (인도) 노란국

■ 상이영화제 · 27일 밤 11시  
기쿠지로의 여름, 엑소시스트, 냉전과 열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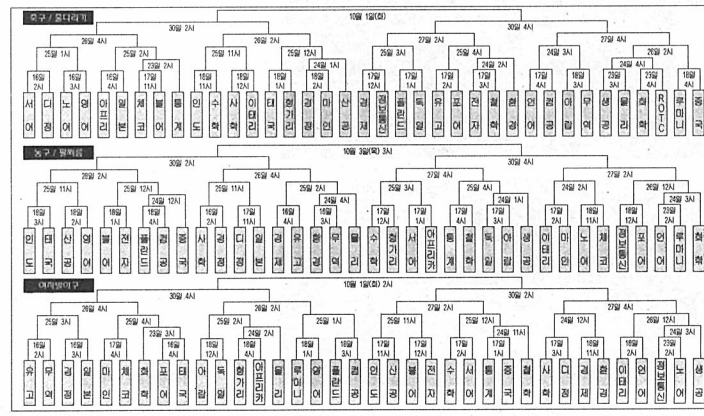
## 용인 학운위 성사 - 복지요구안·시국선언·체전 대진표 추첨 진행돼

용인배움터 확대운영위원회(학운위)가 지난 10일(화) 오후 207호에서 열렸다. 학운위는 정인영 60명, 사교 7명, 재학생 55명 등 총 122명이 참여 예정 총 27.5명 이상을 넘어 성사됐다. 회의는 △미군정당자 희생자 추모, 미선이 관련 영상 시청 △성인점점 △안간정장 △인간존엄 △희생자의 남북 △폐쇄적인 △취급이 순으로 진행됐다.

안건으로는 △방중생포 보고(서면보고) △주최자단기 성취에 관한 보고안건이 있었으며 토론안건으로는 △대안위원 복지요구안 취합 및 토론 △2002년 하반기 사업과 일정 △여학생 암사 사건에 대한 확대운영위 시국 선언 및 결의문 채택이 있었고 기타안건으로 체전 대진표 추첨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부총학생회장 우혜나(동양·마인 01)양은 “개강총회의 결의서 참여에 관한 과제가 있어 어렵다”며 “과거행사와 심도있게 토론을 통해 다음중 중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misophia@hanmail.net



## 세계영화제 준비위원회

- 9월의 테마 : 인문탐구 톰 크루즈 (Tom Cruis) 세븐째
- 7월 4일생(Born on the Fourth of July, 1969, 미국)
- 감독 - 올리버스톤
  - 출연 - 톰 크루즈, 알렉산더, 커리시드릭, 레이몬드,베리, 제리리빈
  - 장소 - 서울배움터 대학원 411
  - 시간 - 9월 17일(화) 오후 5시 30분

실존 인물 톰 크루즈는 베트남 전쟁을 전한 전장이라고 믿고 해병에 입대한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끔찍한 전쟁의 실상을 맞게 된다. 결국 오일론 동료로 싸우고 자신도 부상을 입어 해병사 불구가 되어 귀국한다. 귀국한 톰은 거대한 연일 계속되는 반전시위에 대해 욕을 퍼붓는다. 타락과 냉소 속에 내란가져진 톰은 전쟁의 밑바닥에서 진상을 깨달아간다. 연일 시위대들은 “병사들의 더러운 전쟁이 싫다”라고 구호를 외쳐댄다. 이 속에서 톰은 전쟁과 실존의 진실을 알아간다.

▶ 마지막주는 세계영화제 행사로 휴업합니다.

## 한흥련 열사추모문화제 · 대의원대회 개최

‘한흥련 열사 추모문화제’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가 지난 13일, 14일(토) 양일간 광운대학교에서 진행됐다.

13일(토) 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우리학교 한흥련 대의원인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7명과 광운대 10명이, 용인배움터 총학생회 9명이 참여했다.

추모문화제는 열사 유가족들이 의문사건진규

## 성조기 불태운 김희인 후원주점

김희인(97, 그림사랑) 용인배움터 전통어리엔 합회장의 변호사비 미련을 위한 후원주점이 지난 12일(목) 학생회관 앞에서 진행됐다.

이 날 후원주점은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모금, 열사봉기 등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장 윤상필(동양·경기여 95)군은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닌 김희인군을 한번 더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라며 “이 자리를 계기로 10월 2일 불

태우기도 함있게 준비해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군은 지난 7월 30일(화) 용인 미8군사령부 영내로 진압된 여중생 압사사건과 관련 미군의 재판권 포기를 주장, 현재 포기불가의 입장을 표명한 미국에 항의하는 의미로 성조기를 불태웠으며 현재 미군주최에 수감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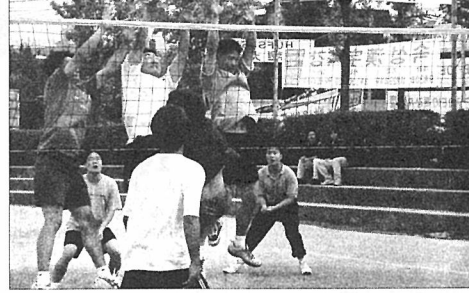
(수신시 365명 동승우유제국 시서한 17호 수번호 365명 김희인)

## 서울배움터

구분	학 생					
요일	아침	점심A	점심B	점심C	지역	면
월	대우메운학 (W1,400)	낙이아해류담방 (W1,600)	재정장식 (W1,500)	부부무장방제 (W1,300)	간지리리프 (W1,200)	백만두국 (W1,200)
화	함지리리프 (W1,400)	달동고기담방 (W1,500)	취사기리프 (W1,600)	심양방 (W1,500)	순두부리프 (W1,300)	물면 (W1,200)
수	생선조리담방 (W1,400)	오징어해류담방 (W1,500)	비프아리아리스 (W1,400)	부대리프 (W1,500)	상주부리프 (W1,500)	지정면 (W1,200)
목	소고기리프 (W1,400)	아재류담방 (W1,300)	문육류담방 (W1,400)	육계장 (W1,500)	우유리프 (W1,300)	스피게티 (W1,200)
금	한기위연휴					

## 용인배움터

구분	이 문 관		
요일	중식 1	중식 2	분식
월	오징어해류담방 (W1,500)	포크리프 (W2,000)	막국수
화	하이아리스 (W1,500)	함지리리프, 유부리프 (W1,800)	전지국수
수	간지리리프 (W1,500)	함지리리프 (W2,000)	비빔국수
목	갈매리프 (W1,500)	육계장 (W1,800)	물면
금	한기위연휴		



막아라! 지난(13일) 서울배움터 대운동장에서 제 17회 총동문회장배 배구대회가 열렸다. 여자부는 한국아교육과가 경영학과를 세트스코어 2:0으로 이겼으며 남자부는 일과과가 무역과를 3:0로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김중원 기자

## 인문대 가을 체전 학생대표자 회의 및 개강총회

인문대 가을 체전이 지난 12일(목)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모두 60여명이 참여하며 축구, 농구, 여자발리볼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인문대 학생회장 이동수(사학 00)군은 “각 과 학생들의 단합을 위해 이번 체전을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인문대가 하나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앞으로도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는 인문대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체전결과 종합우승을 차지한 철학과에 가는 장학이행이, 2등을 한 언어학과에는 진지우(이행), 3등을 한 사회학과에는 오디오(지갑)가, 여자발리볼에는 우송자에게는 문희상(과과)이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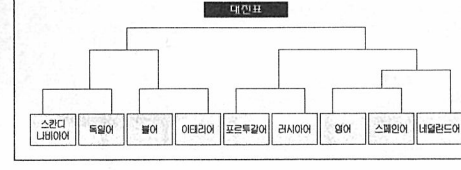
사범대학생대표자회의(사학대회)가 16일(월) 오후 5시 30분에 서울배움터 시청각교육관 114호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18대 학생회 상임기 총노선 · 총조치 평가 △사학계 사업계획 △각 부서별 평가 및 계획 △사학계 (총괄, 유통, 교육자료실) 평가 및 계획 △10월 2일 대학생 총평가 참가준비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17일(화)에 열리는 서양어대학대표자 회의는 오후 5시 사회과학대 501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임기 평가 · 정리 △공약 정리 △각 부 사업계획서 수여준비 사건에 대한 결의서 채택 및 10월 2일 총평가 현황

## 서울 서대, 유로2002 축구대회

‘유로2002 축구대회’가 오는 16일(월)부터 25일(수)까지 서울배움터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서울배움터 서양어대(서대) 학생회가 주최해 올해 처음 열리는 ‘유로2002 축구대회’는 서대에 속해있는 9개의 유럽지역 언어학과가 참가한다. 결승전은 오는 24일(화)에 열리며 25일(수)에는 시상식이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서 1위를 한 팀은 트로피가 수여되고 참가하는 모든 팀은 작은 족자 액자 한 장을 받게된다. 서대 학생회장 백종우(네덜란드여 00)군은 “이번 행사가 각 과의 북학생과 새내기 학생들이 서로 타격을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시 상

- 면  
편집장 정호진(인문·철학 98)  
교육부장 김태형(인문·법학 95)
- 임  
편집장 김충현(정보통신·디자인 01)  
대학부장 권정우(사학·불어 01)  
간인경(사학·이태리 01)  
사학부장 안영모(동양·프랑스 01)
- 서대  
중국어과 16일(월)  
이태리과 18일(수)
- 용인  
사학과 17일(화)  
이태리과 17일(화)
- 오디대학보



# 한국외국어대학교여, '진정으로' 국제전문가로 키워주오!

## 산·학간 활발한 연계, 외국대학과 실질적 교류, 교육의 질 개선으로 특성화 살려야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이 새세기를 4년만에 국제전문가로 키우겠습니다.’ 99학번은 이 광고를 기억할 지 모른다. 위 글은 99년말 우리 학교에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홍보광고의 카피로, 카피라이터는 새내기처럼 보이는 소년인 멧박치 웃고 있었다. 4년이 지나 그 수줍은 새내기에는 어느덧 졸업할 나이가 되었다. 4년전 새내기였던 그 소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올해 2월과 작년 8월 용인배움터 어문계열 졸업자 중 전공을 살펴 졸업한 학생의 비율은 16.9%밖에 되지 않는다. 용인배움터 취업정보센터 안종욱(40)씨는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은 무리이므로 실제비율은 통계보다 더 적을 것”이라며 어리게 말했다. 한 어문계 과의 취업대표는 “전공을 살펴 취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전공과 무관한 일반기업으로 취직한다”고 전했다. 취직하는데 전공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서울배움터 중국어와 취업대표인 이정협(96학번)군은 “우리가 졸업생 중 7~80%정도 전공을 살펴 취업한다. 시대 흐름을 잘 탄 것 같다”고 전했다. 한미경(일본

어과)교수도 “졸업생 중 많은 학생들이 전공을 살펴”고 전제 시대의 중요시되는 언어과들은 각광받고 있음을 입증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예외’일 뿐 대다수의 어문계열 학생들에게 김민지(서양·불어 00학)의 “전공을 살펴 교직으로 가거나, 외국인회사로 가는 등의 일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그냥 일반기업으로 취업한다”는 말이 적용된다.

현재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임승희(타이카어 02 졸업)는 “5년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전공 살리는 사람은 딱 2명 봤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런 현실은 교수들도 인정하고 있다. 송정숙(아랍어)교수는 “전공을 살리는 경우가 많지도 한두명 밖에 되지 않는다. 교수로서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쯤되면 자연히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줄어든다. 조인태(동유럽·체코어 00학)은 이와 관련, “공부를 안하니가 실력있는 학생들이 배출되고, 그러니 전공을 살릴 기회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안타까워했다.

외대인들은 이처럼 어문계열이 활로를 찾지

못하는 데는 외부적 문제와 내부적 문제가 뒤섞여있다고 지적하며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했다. 외부적으로는 다정량과 특수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송정숙 교수는 “우리 사회가 너무 획일화 되어있다”고 지적했고 김민지 학생은 “고등학교 때 적성에 맞춰 과를 선택하지 않고 대학입학만 바라보는 풍토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외국어대학의 특성상 정부가 공공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김성열(스칸디나비아어) 교수는 “사립대학의 관점에서 볼 때 교수가 많이 필요한 반면 학생수는 적어야 하는 특수하여는 ‘논해’는 장사 일 수 밖에 없다”며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국제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선 사립대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로는 학교에서 전공을 살펴 졸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달라는 바람이 가장 강하다.

용인배움터 취업정보센터 안종욱씨는 “근무한 지 2년이 되도록 한번도 해당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과 연계할 기회가 없다”고 고백했

다. 이에 대해 정은경(동유럽·체코어 02학)은 “학교가 취업에 소홀한 면이 많은 것 같다”며 학교의 지원을 부탁했고 김효성(독일어)과 02 졸업생도 “해당나라에 있는 기업과 의 교류가 증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학교의 외국 대학과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와 관련 김민지 학생은 “블어과의 경우 1년에 학년당 2명씩만 교환학생을 보내는 실정이다”고 정하며 교환학생의 수를 늘려 줄 것을 요청했고 박종호(동화·이탈리아어 96)군은 “자매결연을 맺기만 할 뿐 사실상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실질적 지원을 비쳤다.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체코어과 정은경 양은 이에 대해 “체코어-한국어 사전도 없고 교재도 거의 모두가 재판매이다. 동유럽에는 사전조차 없는 과들이 여럿 있다. 정말 공부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을 무조건 해당나라로 보내버리는 상황을 만드는 것 같다”고 꼬집었고 “교수님들도 많이 학생들을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우리학교를 졸업한 임승희씨는 “학교가 외국어라는 특성을 살리지 못하



는 것 같다. 커리큘럼을 세분화하는 등 좋은 수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이 새세기를 4년만에 국제전문가로 키우겠습니다.’ 5년전에 이 광고를 보고 살리는 가슴으로 입학한 수줍은 소년은 과연 국제전문가로 자라날까. 외대의 많

은 구성원들은 “그렇지 못했을까”고 말한 다. 또한 외대인들은 말한다.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활로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고

양창호 기자 hushan@hanmail.net

## ‘협정’만 있고 ‘교류’는 없다

### 정작 실질적인 학생교류는 미미한 채 협정대학만 102개

현재 우리학교가 교육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은 일본 7곳, 중국 6곳, 미국·프랑스 각 5개 대학을 비롯 총 102곳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교환학생제도’ 등과 같이 실질적인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복수학위제도, 피견학생제도, 교환학생제도, 자비유학제도, 단기어학연수제도 등이다.

△미국의 델라웨어 대학교 유학생 진행 중인 복수학위제도는 우리 대학에서 4~5학기, 델라웨어 대학에서 3~4기기를 수혜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할 경우 양 대학에서 학사학위 2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델라웨어 대학에서 등록할 경우 등록금은 외국대학에 내고 우리 대학에는 내지 않는다. △피견학생제도

는 양 대학에서 서로 학생을 교환하는 교환학생제도와 달리 우리대학에서만 학생을 학습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 6개월 또는 1년간 파견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때 외국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대신 본교의 등록금으로 면제받는다.

△교환학생제도는 같은 수의 학생을 6개월 또는 1년간 학생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과 상호 교환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때 등록금은 우리학교에 납부하게 된다. △자비유학제도는 학습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개인자격으로 수학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학점의 제한이 없는 반면 등록금은 외국대학과 우리대학에 두 곳에 납부해야 한다. △단기어학연수제도는 방학동안 학습교류협정 체결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학점인정을 받는 제도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학교에선 해외교류협정을 맺은 대학 수도 많고 교류제도도 다양한 편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류협정제도가 적용되는 사례는 미미하다. 149명도 정원이 가장 많은 서울배움터 영어학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교환학생 프로그램 혜택을 보는 학생 수는 정기적·비정기적 기회를 합쳐 1년에 5명 안팎에 불과하다. 이는 영어학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원수의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과가 마찬가지 상황이다.

우리 학교 교수들은 교환학생제도가 잘 이뤄지지 않는 원인을 학교교육의 ‘재정지원 부족’과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도 미비’에서 꼽았다. 일본어과 김정숙교수는 “일본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교환학생에게 학비나 생활비를 보조해주지 않으면 학생 개인이 부담해야 될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학교교육의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교환학생 제도를 유지·확대시키려면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도 필수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또한 한미경어과 이상협교수도 “우리가 교환학생제도를 통해 외국인 학생을 받으면 외국인 학생을 맞을 준비가 돼있어야 하는데, 우리 학교는 기숙사도 없거니와 그들을

위한 한국학 강좌도 변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독일어과와 스칸디나비아어과는 교환학생제도가 활발한 편이다. 정원이 99명인 독일어과는 98년부터 매년 25명의 학생을 독일로 보내고 있다. 그 중 20명은 함부르크대학으로, 나머지 15명은 빌트스부르크대학에 보낸다.

올해 3월부터 스톡홀름 대학과 교류를 시작한 스칸디나비아어과는 1년에 어학연수 7명, 여름방학에 2명이 단기연수를 받을 수 있는 등 전체 1/3정도가 현지에서 언어를 직접 접하고 돌아올 수 있어 학생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스톡홀름 대학에 외국학생이 입학하면 어학 수능시험을 봐야하나 외대생일 경우 시험이 면제되고 기숙사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또한 델라웨어 대학은 매년 2명을 1년간 항공비만 학생에게 부담을 지게 한 후 이후 모든 것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있다”고 스칸디나비아어과 김정숙교수는 전했다. 이 두 과가 아니라 해외교류협정이 활발한 원인은 교수들의 의지가 적극적이기 때문이라는 편을 얻고 있다. 학교측의 적극적 지원은 방학기간 교수들 개인의 노력의 성과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연세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국제교류가 제일

활발하다. 여름 방학에 100명, 겨울방학에 200명 등 총 300명 이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교환학생들을 위해 ‘외국인 전공 기숙사’를 갖추고 있고 한국학 관련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등 학교측 지원이 상당하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한국어 어학 연수로 가장 선호하는 학교로 연세대 한국어학당을 꼽는다.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강점은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외대특성화 방안’이 외대의 앞날을 밝게 해준다는 것에 국내 구성원들의 이견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입시 철 학교 홍보자료에만 갇혀 나열되는 해외교환학생제도의 소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학교측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민 수제가 요런하더라도 비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해외교류 학생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교환 외국인 학생에게 그들을 위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한국학을 영어로 강의하는 강좌를 개설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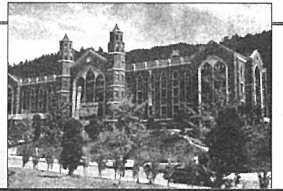
권정우 기자 tingyu@hanmail.net

### 대학생, 정치의 주인이 되자! - 기획광고1

## “니가 정치를 알아?”

2002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정치는 나와 상관없는 것, 정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은가요?  
정치는 말그대로 우리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먼저 실천해, 우리는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정치 주인되기,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 앞장서겠습니다.

새날을 여는 민족지주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인종장 '외대특성화 방안' 실현 가능한가?

# 인종장 '외대특성화 방안' 구체화 필요

언론에 알려진 인종장 특성화 방안, 학내 구성원 의견 분분

인종장 새 총장의 취임 후 신문과 방송에서 '외국어대특성화'에 대한 기사가 많이 늘어났다. 안 종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대 특성화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어디까지 언론에 발표된 외대 특성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크게 3가지다.

첫째, 영어학부를 영어학과, 영미문학과, 통·번역과, 영미지역학과 등 4~5개 영어관련 전공학과가 생기는 단계대학으로 확대·개편한다.

둘째, 중국어과와 일본어과를 합쳐 '동북아 어학부'로 강화한다.

셋째, 아프리카학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의 중앙아시아학과, 몽골어, 미얀마어와 포함된 동아시아학과, 그리스어, 불가리아어, 알바니아어가 포함된 발칸·슬라브어학과 등을 개설한다. 중국측으로는 프랑스의 외국어 대학 이남고(NALCO)를 그 모델로 삼고 있다.

이 중, 중국어과와 일본어과의 종합문제에 대한 선 교수와 학생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중국어과 학생회장 유해나(97)장은 "어디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안에서만 반응이 좋지 않다. 게다가 과와 구체적인 상의 없이 언론에 공개한 것은 잘못이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본어과 학생회장인 박성연(00)은 "학과와 구체적인 논의 없이 언론에 발표된 데에

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학과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중국어과 강준연교수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편을 내릴 수 없다"고 진중한 뒤 "민중 일본어과와 중국어과가 단순히 두 가지 언어만 배우는 식으로 통합하는 것은 안 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본어과의 김종덕교수는 "중국어과와 일본어과를 묶는 동북아 어학부가 되면 우리학교의 중심과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아시아와 발칸지역 언어의 학과를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수가 옹호 방향이던 입장을 보였다. 체코어과의 김규진교수는 "진짜 있어야 한다. 외대가 나가야 할 길"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한 상태에서 총장이 언론에 제기한 방안을 쫓아는 것은 적절치 않은 듯 하다. 종장은 이제 외대 특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들고 학내 구성원의 이해를 구해야 하겠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한 상태에서 총장이 언론에 제기한 방안을 쫓아는 것은 적절치 않은 듯 하다. 종장은 이제 외대 특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들고 학내 구성원의 이해를 구해야 하겠다.

### 이남고(NALCO)대학이란?

1795년 국립동양어학교(Ecole des langues orientales)의 후신으로 정화현 명칭은 국립중앙외국어대학교(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다.

1971년 파리 3대학 부설로 이어져 오다가

1848년 완전히 독립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대학과 달리 국립대학인 이남고대학에는 10개의 학부와 6개 전문직업교육과정이었다. 지역별로 구분한 10개의 학부에는 각각의 세부학과가 있다. 알레르 한국어는 '유라시아어문학과'에 속한다.

고등전문직업교육을 하는 6개 과정은 '국제 무역', '국제관계학', '지중언어처리', '다문화연구', '다국어언어공학'.

'외국어교육과 교수법'으로 나뉜다.

위 6개과정에 지원하려면 각 과정별로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

언어교육에 큰 비중을 할애하는 우리학교와는 달리 이남고대학 10개 학부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언어를 중심으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지리, 법, 철학, 예술 등의 광범위한 강의가 존재한다.

권정우 기자  
tingu@hanmail.net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눈길'

'산·학·연 협력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공살릴 기회 높아져



어문계열의 전공을 살리는 대안으로 용인배움터에 있는 외국학종합연구센터(원장 조이환 포어과 교수)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산·학·연 협력에 관한 특별법'이 대학 자체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개정됨으로써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1년부터 건립을 추진, 95년 기공해 99년에 용인배움터에 외국학종합연구센터는 외국학과 지역학분야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어'의 특성을 살려 국제지역에 관한 정보 공급·연구·연수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산업체와 학술단체, 정부기관과의 협동을 공고히 하려 노력하고 있다.

외국학종합연구센터는 크게 연구동, 강의동, 생활관의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 연구소, 북미연구소, EU연구소, 동유럽·발칸 연구소 등 외대내 모든 언어과를 포괄하는 11개의 지역연구소가 있다. 각 연구소는 지역 연구활동 이외에 국내 기업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 지역전문가 연수과정, 해외 역사문화 연수과정, 한국어학 연수과정 등을 개설하고 있다.

각 연구소는 순수한 연구기능도 하지만 동시에 기업과 연계하여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전공인력양성에 큰 도움이 될 방침이 마련돼 있다.

특히 최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에 관한 법률'이 2003년 3월부터 대학 자체적으로 대학내에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개정됨으로써 전공인력양성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인 김지영(영미어과 강사)씨는 "중국의 변화 대에는 200여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다. 우리도 것처럼 우리대학의 특성을 살려 외국학에 관련된 기업을 만들면 많은 학생들이 전공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며 "특히 특수어과의 고질적인

취업문제를 잘 아는 우리대학에서 특수어과의 상황에 맞는 기업을 설립하면 학생과 대학이 모두 사는 길이 될 것이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한편 학부생들이 외국학종합연구센터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와 관련,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사무주인 채수동씨는 "센터는 외부인들의 연수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개방해오겠다는 것을 홍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 "기본적으로 연구동의 자료실과 11개 지역연구소는 학생들에게 개방돼있다. 일반적인 자료실보다는 다른 나라의 문화·생활 등 지역학에 관련된 서적과 영상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학생들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인터뷰 - 전공 관련 직업 찾은 정용(동양·태국 98)씨를 만나

## "전공 살리기 힘든 어문학과와의 현실"



\*타 화과는 달리 어문계열 화과는 전공을 살려 직업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전공을 살릴 생각을 못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태국어과 졸업생 정 용(동양·태국어 98)씨는 인터뷰에 오른 공교를 보고 현재의 직장에 취직했다. 장씨는 한국문화공원을 태국에 진출시키고 태국의 문화공원을 국내에 소개하는 양국간의 문화 교류를 기획, 추진하는 '비즈니스드림'에서 일하고 있다.

양국의 문화교류사업을 위해 주로 태국인과 현지 사무소를 대상으로 일을 하는 그는 "이 일을 하면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며 "일의 특성상 현지인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그럴 땐 외대에서 공부한 것들이 많은 부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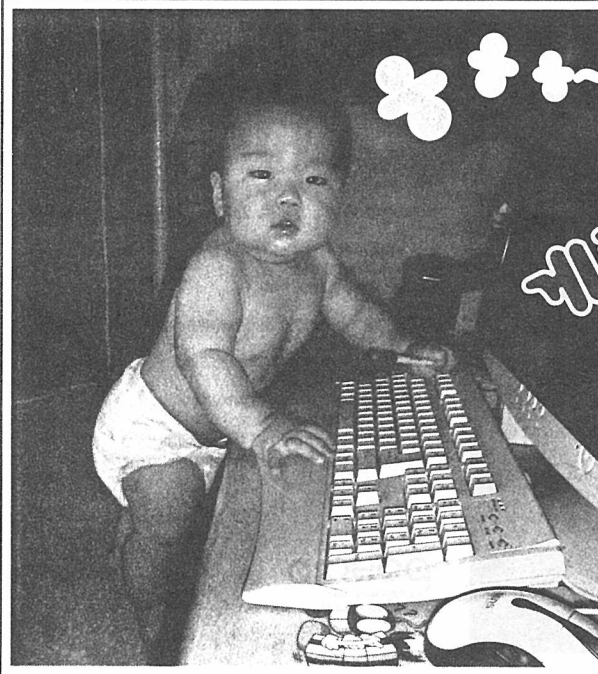
"요즘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태국어)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문계열 졸업생들이 진출할 분야가 좁아보니 자연스럽게 학생들도 전공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라며 어문계열 학생의 취업문제를 지적한다. 이와 함께 그는 "홍익에 의해 선택된 학과가 아닌 점수에 의한 전공 선택 역시 큰 문제입니다"라며 "이런 사회적 풍토 역시 어문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나름대로의 어문학

위기의 원인을 진단했다.

그 대안으로서 그는 "지금보다 회화 수업을 더욱 더 늘려야 해요. 사회에 진출해 실무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인 회화능력을 키워 줘 어문학과 졸업생들의 경쟁력을 높여줘야 합니다"고 학교에 당부했다.

또한 "배민 졸업생의 20%정도만이 자신이 4년간 배운 전공을 통해 직업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문계열 학생의 대다수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것입니다"며 "학생들이 안심할 학교나 국가의 지원대책도 미비합니다. 학교와 국가는 하루 빨리 학생들이 그들이 4년간 배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며 말을 마쳤다.

김정훈 기자  
bpress@hanmail.net



나두 '인터넷 외대학보'

제일라 기자라구요!!

서툼과 어눌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한 아기처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서툼과 어려워하는 당신. 어려워 마세요. 부끄러워 마세요. 망설이지도 마세요.

당신이 참여하는 한 누구나 기자가 되고 모든 것은 기사가 됩니다. 내가 만드는 인터넷 외대학보.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내가 만드는 외대학보'  
www.ihufsan.com

ihufsan  
내가 만드는 인터넷외대학보

민노보기 -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 권영길씨

# 진보정당, 평등·평화를 위한 작은 벽돌

## 개혁적 국민신당 성격모호... 민주노동당은 좁은층 꺼안으려 노력할 터

**진보정당의 후보가 대선에 출마한 것이 이번의 미를 가진다고 보는가**

30년동안 지속된 3김 정치와 패거리정치, 지역주의정치 등 전반적인 정치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출마한 것보다 국민들이 진보정당에 표를 던진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진보정당에 표를 행사하는 것은 곧 이 나라의 역사발전권을 위해 '평등·복지·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벽돌을 하나 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제대로 검증받은 적이 없지 않은가**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제3당이 일컫는 지명권을 알지르는데 국민들에게 이미 검증됐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정당의 국민적 검증이라고 한다면 조직력과 투쟁력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당은 조직력과 투쟁력을 입증할 적이 있었는가? 패거리정치와 지역주의정치가 아닌 남북통합·국민통합을 어느 당보다 높은 보편성을 갖고 있는 진보정당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었는가?

**대선때만 TV토론회가 열리는 데 지지율에 따른 참여의 전환점이 중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방향이 민주노동당은 정적으로 반대한다. 대통령선거를 미다선선거로 만들어 놓고 지지율 높은 후보만 토론회에 등장시키는 것은 진보정당의 정치 참여를 완전 봉쇄하는 것과 다름없다.

**최근 총리서리 인준과정에서 정치인의 도덕적 자질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도덕적인 면에서 자신을 평가하시겠나?**

이번 (인준과정상의) 도덕성 검증은 주류 세력의 도덕성이 바닥까지 다다랐음을 입증했다. 정치개혁은 정치개혁의 교체이다. 허울이 아니라 활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 민주당의 신당창당은 무용지물이다.

도덕적 자질에 대해서 자신있는데, 나는 30년 동안 이 민족의 미래만을 걱정해온 사람이다. 누구보다 알하는 사람들과 함께 싸워왔으며 올바른 사회를 위해 힘써왔다.

**공약 중 남북무 충돌이 있다. 국가안보차원에서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은가**

현 국방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두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은 북한을 전쟁의 대상이 아닌 화해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만약 전쟁이 난다고 해도 그 대상은 북한이 아닌 미국, 일본 등의 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병역의 규정은 강대국들과



권영길

“ 패거리정치·지역주의 정치를 청산하고 남북통합·국민통합을 이뤄낼 당은 진보정당뿐이다. ”

상대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군축을 통한 경제적 효과(군비감축을 통한 교육투자 등)를 더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에 철수하지 않는 것은 어느정도든 인본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시민씨가 추진하는 국민정당에 대한 입장은?**

(최근 결별선언을 한 시사평론가 유시민씨는 지난 8월 28일 민주개혁세력의 총단결을 지향한다는 '개혁적 국민정당'의 구성을 발표할 후 이를 만에 6월달이 넘는 창당발기인을 모았다)

민주노동당은 준비를 내지 않으면 회원이 될 수 없다. 대중이 참여하는 정당,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이 바로 민주노동당이다. 유시민씨의 개혁적 국민정당이 이러한 정점을 본받겠다는 것은 가상하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시

민씨는 이미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행동만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최근 절망까지 하면서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노무현을 지지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확실히 지지의사를 밝히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단순히 노무현을 지지하기 위한 정당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번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선 진보적인 계층인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정치참여가 필수적이다.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대학생 정치참여를 위한 방안이 있나?

대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약으로 내놓고 나에게 표를 주시사 지지호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는가? 만약 그래도 지지하지 않는다면 대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웃

음) 이미 민주노동당은 각 대학마다 학생위원회를 건설해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 대학생만을 위한 선거유인물을 제작하는 일 등은 법적으로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합법적인 선거운동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교육정책 중 '2002 학대개편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달라'**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당 차원의 공식적 정책은 아니며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겠다.) 사실 학대개편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종교교육 강화가 필수인데, 개인적 입장에선 서울에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 대학의 평준화, 즉 하향평준화가 아닌 모든 대학의 서울화를 말하는 것이다. 소위 일류대학 영입이 변화되어야만 창조적인 인성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소질과 재능을 키워주는 교육이 국가가 해야 할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사립학교법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사립학교법은 악법이며 당연히 철폐해야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때문에 교육의 공공성이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투명성 문제 때문에 방해받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만 강조하듯이 나는 공약에서 모든 교육의 공공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대기권공동기자인데**

- 약력**
- 1941년 11월 경남 삼천에서출생
  - 1961년 경남고등학교 졸업
  - 1961년 서울대학교 입학
  - 1967년 대학원박사
  - 1980~87년 서울신문 편집, 특필원
  - 1988~94년 노동운동 투신, 언론노조 초대, 2대, 3대 위원장
  - 1993년 전국노조총합대표자의 공동대표
  - 1994년 우리농업지킴이 국민운동본부 대표
  - 1995년 5·18 학술지침회 특별법 대학위원장
  - 1995~97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 초대 위원장
  - 1997년 12월 국민승리1대 대통령후보
  - 2000년 4월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청원(을) 국회의원 후보
  - 2001년 1월~2002년 2월 민주노동당 대표
  - 2002년 3월~현재 제21기 민주노동당 대표



## “전과자 딱지는 두렵지 않습니다”

### 12일(목), 서울대 나동혁씨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양심적 병역거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목) 나동혁(서울대 수학과 96)씨가 공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는 오태원(서울교대), 유호근(순천대), 임지운(동아대)씨에 이어 한국사회에서 네번째이다.

이런 지지선언에서 사회당 양명철씨는 “최근 정부가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징검다리 고도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도 연행하는 사고 방산이다”고 비판하며 “국가권력의 무소불위한 힘이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직언행태”고 지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임준인 변호사도 “예견된 재사주의자를 인정하지 않았던데 지금은 인정한다. 동물을 죽이지 않겠다는 것도 인정되는 데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죽이는 연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왜 인정 안되나”고 반문하며 “일드립 4장 풍고 경제 선진국 풍진국 민주주의의 인신위와 입법정권을 위한 100만 시민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

“전과자 딱지는 두렵지 않습니다”

연대회의는 또한 지난 11일 세 번째 공개적 병역거부자였던 임지운(동아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을 혐의하며 불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병역거부서를 병무청에 전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또한 앞으로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해 국회 및 10시위와 입법정권을 위한 100만 시민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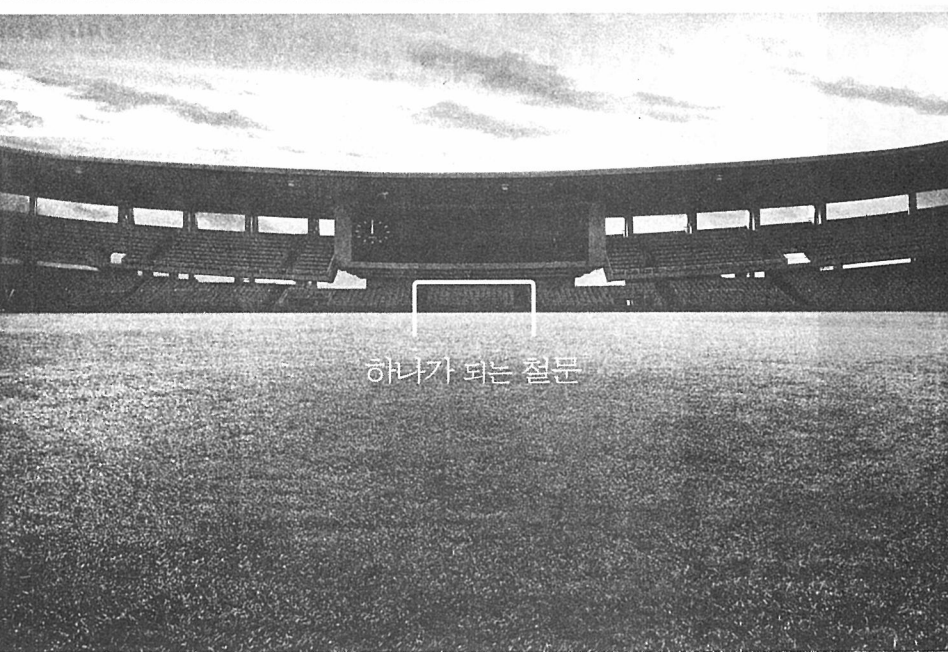
특히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나 씨 이외에도 입영날짜가 잡히지 않은 11명의 대학생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며 예비 병역 거부 선언을 했다. 대표 열명(전, 경, 호, 대, 대)은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병역 거부 선언하는 것은 경제적 병역의 의무의 문제가 몇몇 개인들의 문제가 아님을 알리기 위

양심도 기자 hufshan@hanmail.net

## 26일(목), 흥세화씨 초청 강연회 열려

“나는 배리의 택시운전사” 저자인 흥세화씨의 강연회가 오는 26일(목) 늦은 6시 용인배움터 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흥세화씨는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병역 거부 선언하는 것은 경제적 병역의 의무의 문제가 몇몇 개인들의 문제가 아님을 알리기 위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싶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또한 한시연과 SCA는 사리지고 있는 학생들 중도를 되살리기 위해 이번 강연을 바탕으로 10월말부터 11월까지 일주일에 한번씩 연에 걸쳐 언론·연애·노동·정치 등 다양한 주제와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이번 강연을 맡은 흥세화씨는 “나는 배리의 택시운전사”, “백노장은 좌우를 가르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의 저자로서 현재 한겨레신문사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나가 되는 철문

가로 7.32미터, 세로 2.44미터

이 사각의 철문에서 하나 된 우리를 보았습니다

하나 된 마음을 보았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사함으로 불가능을 얹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

이제, 하나 된 우리의 힘이

탄탄한 한국경제로 메아리칠 차례입니다

세계속구 4강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꿈- 세계 1강의 철강기업으로 포스코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동유럽 문화 및 예술기행(폴란드 동유럽·발칸학회에 다녀와서)

# 이국의 땅 폴란드에서 느낀 단상

## 폴란드 포즈난 행 열차를 타고

동유럽문화와 탐방 위해 교수단과 함께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프라하, 비엔나, 부다페스트, 크라쿠프까지 여행을 마쳤다. 여행단이 이 비르사(비) 여행 후 모스크바를 거쳐 귀국 길에 무사히 오르길 기대하며 혼자서 학회가 개최될 폴란드의 고도 포즈난을 향하는 열차를 타기로 했다. 각 도시에서 그 나라의 도시문화와 맛과 음식문화, 신천의 모습을 보는 수박 겉 핥기 식 여행에 심신이 지쳤다. 모든 여행은 고생이 따르며 마흔이 지난 듯한 나날로 일어난 것이 있기 마련이다. 크라쿠프 역 구내나 승강장은 모두 안내원이 있었지만 되어 있어 불편했다. 얼마 안 있어 기차를 올라타 열차가 떠나자 두번째 칸에 올랐다. 피로했다. 열차타기라는 삼 두 열차의 속도도 자랑하기 힘들 수 있었다.

두시간 가량 잠을 자고 나서 열차. 폴란드 열차신문들을 펼쳐본다. '놀라운 터키인'이라는 마법의 체크스게 기사를 재미있다. 헝가리인 캄페리언이 고안한 자동 체크스게였다. 이것은 그 유명한 러시아 출신 세계 체스의 챔피언 카스파로프를 이긴 디프 블루(Dep Blue)보다 30여 년 앞선 만들어진 위대한 체크스컴퓨터 기계였다. 기계에 도전하는 체스 선수들을 하나씩 이겨나갔다. 나폴레옹이 이 기계를 숙련수로 이기려하자 이 터키인 '터키인'은 나폴레옹을 이기는 대신 체스 판을 뒤집었다고 한다. 유명한 시인 포유(E. Poe)는 이 기계에 대한

이론 책도 썼다. 헝가리인은 세계에서 인구에 비해 발명가가 가장 많은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그가 꿈꿔온 찬란해가는 데는 헝가리인은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다.

폴란드의 경관에 펼쳐진 말밭에 말이 먹고 있었다. 내 칸에 들어온 젊은 여대생도 서슴없이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이번 여행 중에 질 심한 느낀 것은 폴란드 사람들의 남들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느꼈다. 정말 폴란드인들의 성격에는 친절함 시교성이 있는 것 같다.

목적지인 포즈난에 도착하니 역은 왠지 낯설었다. 여학생 도로로다 차에서 내리자 인사를 하고 재빨리 사라졌다. 모두들 재 갈 길을 바빠 가는 데 나 혼자만 이방인으로 느꼈다. 승강장을 빠져나왔다. 차장에서 잠시나마 같은 여행중이라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옆에 내리면 다들 목적지가 있어 순간적으로 헤어지고 헤어지니 약간의 고독감이 느껴졌다. 만다가 해 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인데도 이국의 낯설은 커다란 정거장에서 홀로 남으니 이방인의 외톨이 심정을 이해할 것 같다. 가족과 친구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떻게 긴 인생을 살아가겠는가? 인간은 어떤 기로 인생을 걸고 싶어 하고 누군가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까? 이라는 질문이 아닐까? 현대에는 이러한 질문과 가족이 있어도 서로의 대화와 통하지 않고 서로 이해해주지 못해서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외톨이가 되는 커피의 (이방인)의 피

르스 같은 주인공과 카르포의 (변신)의 그리고 더 깊은 주인공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가족과 친지, 친구의 소중함을 절감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또 약간 아는 사람 뿐이나 이웃들과의 소중한 의사소통의 대화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시간이 있어 역에서 물어 찾아 간 국립 박물관 갤러리에는 폴란드를 비롯한 후기 인상주의의 기법의 그림들이 많았다. 19세기 후반 폴란드 상징주의 화가 프루코프스키의 회화들은 폴란드 민속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의 작품 "정원 풍경"과 "우물가에서"는 사실적인 요소를 보여준다. 폴란드 회화 중 나비의 눈길을 끄는 것은 10여 년 전 비르사(비)와 크라쿠프에서 보았던 말레프스키의 강렬한 색채의 인물화들이다. 크라쿠프 미술관에서 보았던 "에비(Ewa)"란 그림은 후기 인상주의 기법에 약간의 환상적인 터치들 한 나체의 이브 모습이 인간의 자연 속에서의 원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위스트린스키의 "자화상"은 후기 인상주의 기법의 이치적인 작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푸른색과 색과 여자 드레스의 색 그리고 하얀 꽃과 모자의 숲의 대비가 어기 지기했다. 또 바이스의 "꽃이 만발한 풍요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네덜란드의 반 고흐의 스타일을 흉내내기 같은 강렬한 화풍이 넘치는 표현주의의 기법이 엮여있다.

이 당시 폴란드 문화는 문학에서처럼 '창년 폴란드'파에 속하여 미술의 아방가르드 운동의 주체였다. 아방가르드 회화는 음악과 더불어 함께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여 누구도 보고 들을 수 없는 해의 여행 시에는 도시의 외관만 보지않고 그 나라 국민들이 창조된 문화적인 것을 맛보는 것이 중요했다. 한나라의 예술 정신을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또한 미술 작품이나 건축물의 감상이다.

이번 화회는 80여명의 국내의 학자, 교수, 대학원생들이 참석하여 2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여러 발표논문 중 특히 체코의 슬로바키아의 분립 독립과 언어정책의 특과 실이 흥미로웠다. 학회가 끝나고 폴란드문학박물관 탐방을 갔다.

## 남반주의 시인의 사랑

아담 미츠키에비츠 문화박물관은 고전주의 양식의 멋진 건물로 웅장한 원형 경관을 앞으로. 멀리 작은 언덕과 말밭을 앞 배경으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박물관은 당시 슈미에워프에 살았던 귀족의 거주와 미츠키에비츠가 주인 마담 콘스탄츠와 사랑에 빠져 머물면서 사용했던 책상 등 고전적인 가구를 잘 보존하고 있었고 그의 저서, 연극포스터 등 안내하게 전시되어 있다. 이곳은 1830년 즉 폴란드어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러시아에 의해 점령당해 있었던 비극적인 시기에 미츠키에비츠가 로마에서 와서 당시 비르사(비) 분기가 전입되자 머물렀던 곳이다. 그는 이곳에서 친사 대접을 받았

며 여러 귀족가문의 귀빈으로 초대되어, 사냥, 축제, 연회 등에 참석하고 책 출판의 교섭도 받았다. 그리고 이곳에서 낭만적인 시간답게 격렬한 사랑에 빠졌다. 콘스탄츠라는 귀부인과 열애에 빠졌다. 그녀는 문학을 사랑하고 실제로 시도도 하고 하는 아름다운 귀부인으로 미츠키에비츠를 열렬히 숭배하게 되었다. 일상에 외양만 좋은 사랑을 눈치챈 남편 미용을 사이 곳을 새백에 떠나고자 했으나 콘스탄츠가 폴란드 농민들에게 러시아병사의 옷을 일러 정열 기증자리에 매복시켜 집밖에 나가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시인은 이 귀족 집에서 (오르돈의 오새)의 초고와 11월 봉기에 대한 시들 즉 (아간 속), (대형의 죽음), 발라도 (명함) 등을 썼다. 박물관에는 그의 위대한 문학들의 초고와 초판본 등이 잘 전시되어 있었다.

1시간 가량 폴란드 대 귀족의 삶과 시인의 흔적을 살펴보고 특히 그의 사랑에 빠졌던 낭만기 어린 예수가 있어 있는 콘스탄츠 부인의 초상화가 눈길을 끌었다. 당시 이곳 귀족사회는 조국의 비탄한 정령시기에도 호화롭고 단조로운 시골 삶에 폴란드 위대한 시인과 귀부인과의 사랑은 모두들 이야기하길 좋아했다고 한다. 박물관 정자는 한 작자에 대한 폴란드인들의 애정과 존경을 읽을 수 있었다. 비르사(비)가 한때 세계문화의 고향이라고 외치는 폴란드 정년문화가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다. 폴란드 한 작가의 생애에 대해 흥미를 끌었다. 폴란드 이 저 누워져있다고 한다. 일행은 또 한편 폭소를 터뜨리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나는 밀 이삭 하나를 비벼서 맛을 보았다. 어릴 때 자주 씹어 밀겉을 씹다가 씹다가 먹곤 했던 추억이 있었다. 시간이 있어 밀 씨라 도 해먹으면 사대를 거울라울라 고향 폴란드에 온 착각에 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말밭에서 나는 사랑의 전설처럼, 농촌은 이 마나면 폴란드 시골이나 한국의 고향이나 정서는 같기 마련인가 보다. 말밭이 높아서 마루나무는 왜 그림자 고향 언덕의 마루나무와 그리도 똑같은지 언덕마루에 실랑여며 속삭이는 나뭇잎 소리도 고향의 나뭇잎 소리도 똑 같았다. 풍뎉레 소리, 매미 소리, 일사위에 기어올라가는 개미도 고향 것과 흡사했다. 나는 밀 이삭



하나를 씹으며 혼자서 잠시 상념에 잠겨 마루 나무그늘을 따라 밀 밭가를 천천히 걷다. 아무때나 맨발로 누워의 천천히 어이들과 천천히 뛰놀던 일간 묘사장과 더운면 반대로 간에 뛰어 들어 먹었던 생과, 배고프면 밀 서리, 풍서리 해먹던 생각에 잠겼다. 누이는 고향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버지가 지은 거대한 화재가 된 개지저분 초가집을 비어두면 낡아질까 마 안락에서 잠는 병아리 메기로 매운맛 달까 밀 밭가를 한바퀴 돌아보고 고향을 지키는데, 다른 이들은 모두 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밀 이삭 하나가 주는 무한한 사랑과 향수에 젖어 걷는 것이 나는 좋았다. 말밭에서 나의 발걸음에 놀라 뛰어 오르는 매뚜기 또한 고향 생각을 내게 했다.

비록 모양은 달랐지만 이 매뚜기들 밀 서리 해먹으며 구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삼이 쪼개지 않아 맨 매뚜기를 구어 먹는 맛은 어떤 고기보다 구웠던 어떤 달콤한 생과이 지루지루하다. 겨울에 초가 까지 지붕 밑에서 손으로 찜새를 솥치 잡아 불어 먹던 밀 한해추기이다. 들 속에서 짐은 개구리를 회피해 구어 먹던 맛은 어떤 고기 맛보다 견줄 바 못되었다.

사실 농촌에 살면 자연에 못 먹을 것이 없었다. 이른봄엔 온갖 새들과 꽃들이 독특한 맛을 내었다. 이른봄의 참취한 건넌대, 달콤한 인동 꽃은 아무리 따먹어도 심음이 나지 않았다. 켈레의 가다란 씨는 맑기도 좋았다. 가을엔 가지 채 먹는 그 옛날을 지극하는 속감이다... 누이 함께 같은 하얀 색의 꿩이 풀 새백은 새를 달랠다. 5월엔 풀 향기 짙은 아카시아 꽃따먹기, 송진에 나는 송화 가루 씹어먹기, 소나무 꼭 베껴 먹기 또한 즐겁다. 폴란드 폴란드의 밀 이삭 하나가 어떤 달콤한 추억을 안겨줄까 떠오른다. 열정적 삶이 함께 고투리며 말밭에서 손끝 장난하거나 개미가신의 모래집을

개미를 잡아먹으며 그것을 잡아먹는 것을 즐기고, 손톱에 분홍색 분홍이 붙어 놀라 놀라가면 때때로 멀리 이사기타민 밀 일가의 손이 는 저를중 얼마나 놀라 어떻게 생각해?

상념이 꼬리를 물고 떠오르니 나는 하염없이 밀 밭가를 천천히 걷다. 멀리서 소리쳐 부르는 소리에 다들 비스로 향하고 있어 밭길을 돌았다. 폴란드 시인이 들려왔던 길을 나도 걸었다. 저쪽에는 어떤 때 천천히 누워도 있었고 콘스탄츠도 있었고 우리 일행의 무리가 풀려가고 있었다. 말밭의 사랑도 이 순간 내게 정설 이상 아무 것도 아니다. 현실로 돌아가지. 꿈을 깨자.

(쿠오 비르사의 작가 시엔카에비치의 문학 박물관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시엔카에비치의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쿠오 비르사>이다. 네로 시대의 막 시작던 신흥 종교 교인 기독교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탄압을 19세기 폴란드인들이 실국들에게 분할되어 수난 받는 폴란드인민들의 애환에 비유하여 표현하여 폴란드인은 물론 세계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받은 명작이다. 비르사 이후에 의하면 1차, 2차 대전 당시 폴란드 병사들이 오른 쪽 주머니에는 성경, 왼쪽 주머니에는 쿠오 비르사를 가지고 다니면서 참호에서 즐겨 읽었다고 한다. 문학을 사랑하는 카톨릭 민족 폴란드인들의 애국심이 대한다. 어떤 방식은 가슴에 충을 맞았는데 비로 이 두 권의 책 때문에 생명을 건지기도 했다고 한다. 책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문학 흔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즐거움은 이번 화회의 여행을 통해 얻은 큰 수확이다.

김규진

(한국외대법학과 교수, 한국동유럽발칸학회 회장)



## 바다

조천일  
<동양·중국어 65>

수평선 멀리  
작은 섬들이 떠 있네

바다 위에는  
붉은 노을이 곱네

하얀 물보라는  
바위만을 적시는 아름다운 유류

폭발 핑크를 쏟았는가  
바다는 순수하다

새끼는 바람같이 스치고  
한 마리 갈매기는  
외로이 노래를 부르네

이제는  
보래달처럼 살아라  
같은 바다처럼 살아라



## 추석, 부모님들이랑 잘 보내고 오소~

오랫만에 포인 송 풀리듯이 웃는구나.  
내 비록 맘 몰래 일한 날들  
공양만큼 거뒀을지라도  
조금 한~씩 유취 지내며 웃는구나이런.  
내 평생 갖는 농사인 아들, 딸 녀석들의 웃음은  
깨~득 깨들 수 있기 때문이지라.  
넌로 말도 안되지만 같이부터 떠는 뎨으로  
이런 추석 의미제기 보낼 것이두만.

민중자연  
외대학보